

최고경영자 기업인 네트워크 활동이 기업역량을 매개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EO's Network Activity on Business Performance through Corporate Competency

최애희*, 박진아**, 김윤호**, 이재원***

(주)드리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Ae-Hee Choi(ahchoi@dreamee.co.kr)*, Jin-Ah Park(jina9304@koreatech.ac.kr)**,
Yoon-Ho Kim(youno@koreatech.ac.kr)***, Jae-Won Lee(jwlee@koreatech.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 이론에 근거하여 기업인 네트워크 활동과 기업역량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들 특성과 경영성과 사이의 영향 관계를 비교·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 기업인의 네트워크 빈도, 중요도, 신뢰도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때 기업역량(산업정보역량, 기회포착역량, 전략적 유연성, 거래비용절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역량을 기업인 네트워크 활동의 직접적인 성과변수로 포함하여 경영성과의 측정을 시도하였으며, 기업인 네트워크 활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원천과의 교류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네트워크 활동의 질적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데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

■ 중심어 : | 기업인 네트워크 활동 | 산업정보역량 | 기회포착역량 | 전략적유연성 | 거래비용절감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type of network activity and corporate competency based on network theory and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characteristics and business performan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requency, importance, and reliability of CEO's had a positive (+) effect on business performanc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orporate competency (industrial information competency, opportunity capture competency, strategic flexibility, and transaction cost reduction) appeared. This study tried to measure business performance by including corporate competency as a direct performance variable of CEO's network activity and found that it is desirable to focus on interacting with the most important network sources and to make efforts to strengthen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network activities rather than expanding the scope of the network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CEO's Network Activity.

■ keyword : | CEO's Network Activity | Industrial Information Competency | Opportunity Capture Competency | Strategic Flexibility | Transaction Cost Reduction |

I. 서론

기업인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다양한 능력과 역할 중에서 대인관계와 관련한 능력과 역할은 핵심적인 요소이다[1]. 따라서 기업인들은 기업의 규모, 산업, 지역 등과 관계없이 자신의 기업과 관계성이 있거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기업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기업인이 인적 네트워크 활동에 집중하는 이유는 접근 및 획득이 어려운 정보와 자원을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기업성공에 필수적인 정보자원, 자본, 재화, 인적자원 및 역량 등을 좀 더 수월하게 획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내 광범위한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2].

지난 몇 년간 세계화에 따른 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히 대기업보다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의 네트워크 활동은 새로운 생존과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기업은 몸집을 키우기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영역에 내부역량을 집중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소기업들이 교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 기업경영성과 증진에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결정요인을 설명하거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기업인 성향 특성 및 재무적 성과를 중심으로 논의됐을 뿐 기업역량들의 다차원적인 매개효과는 연구대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기업인 네트워크 활동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기업인의 교류를 통해 외부자원을 활용하면 성과가 향상된다는 관점의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기업역량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일부 연구도 정책 방향을 찾는 정도에 그치거나 실증분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기업인 네트워크 활동의 다양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

가 많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네트워크 이론에 근거하여 기업인 네트워크 활동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 특성과 경영성과 사이의 영향 관계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기업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역량으로 산업정보역량, 기회포착역량, 전략적유연성, 거래비용절감을 포함하여 네트워크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기업인 네트워크 활동

네트워크는 기업 간의 관계와 경쟁 우위 창출 및 유지를 위한 다양한 관계 활동의 상호 간 관계로 정의되며(Wickham, 2004), 기업 활동적 측면에서는 “기업 간 자원, 정보, 지식 흐름의 공유를 통해 기업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간의 연결”이라 정의된 바 있다[3][4].

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이란 둘 이상의 기업이 자원의 교류와 공유를 기본 정신으로 특정의 목적을 위해 결성한 유형 또는 무형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5]. 기업 간 네트워크는 “특정의 관계로 연결되는 기업의 집합”을 말한다. 이를 기업 간 관계의 관점으로 보면 “기업 간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관리하는 경제 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기업인 네트워크는 “기업 간 추상적인 관계까지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연결 관계를 맺은 제 조직들의 통일체”로, 계층구조를 갖는 것이 네트워크의 한 특성이다.

이처럼 네트워크 활동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때 연구의 주요 관심은 네트워크의 어떤 특성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활동 특성은 양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구조적 특성과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관계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은 네트워크 크기(size), 네트워크 밀도(density)로 개념화할 수 있다[6]. 네트워크 크기란 네트워크 참여자가 서로 다른 원천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네트워크의 폭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내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연결 강도로 볼 수 있다.

네트워크의 관계적 특성으로는 네트워크를 결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신뢰(reliability)가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신뢰가 높을수록 네트워크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의 질과 협력적인 행동 예측이 가능하므로, 신뢰는 자원 흐름의 품질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7].

2. 기업역량

산업정보역량은 기업이 지속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며 R&D, 경쟁기업, 정부 출연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 기술 및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8].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산업정보역량에는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산업정보의 집약도와 혁신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9].

기회포착역량이란 기업의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전략적 기회를 발견하고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며, 넓은 의미에서 기회란 “보다 우수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자원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가능성”을 말한다[10].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과 기업가 정신을 펼치는 데 기회의 중요성은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언급되었으며, 최근 경영학 분야에서 ‘기회포착유능감’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기업의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전략적 기회를 발견하고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으며,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경쟁우위를 조성하는 중요한 성공요소 중 하나이다[11][12]. 기존 이론에서 이러한 유연성의 측도는 효율성(efficiency), 대응성(responsiveness), 변동성(versatility), 강건성(robustness)으로 측정되었다[13].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에 따르면 거래비용이란 거래의 형성 조정 및 집행비용을 포함한 거래 파트너들 간의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며, 거래 당사자들은 가장 경제적으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방법으로 거래를 수행한다는 것이다[14]. 기업이 이러한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시장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려는 거래비용 절감 능력 또한 기업의 중요한 역량에 해당한다.

3. 선행연구

네트워크 활동 특성과 기업 경영성과 간의 기존 연구 결과를 보면 Aldrich(1979)는 기업 간에 상호 관련된 자원의 양과 상호 작용의 빈도가 높을수록 성과가 높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Walker et al.(1997)는 파트너와 밀접한 관계의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자원을 많이 획득한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15][16]. Standifird & Marshall(2000)은 네트워크의 크기와 활동 범위가 클수록 거래비용이 감소하여 기업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17]. 박상문(1997)의 연구에서 모험기업의 규모(범위), 활용도(빈도), 중요도는 기업성과(종업원 1인당 매출액 및 이익)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네트워크 내용별 규모와 활용도는 매출액 성장률과는 약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18]. 정대용·양준환(2009)은 중소기업이 교류하는 네트워크 범위가 작고 빈도가 높으며 신뢰가 클수록 기업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다[19].

즉, 선행연구에서 질적 요인인 네트워크 중요도와 신뢰도는 기업성과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양적 요인인 네트워크 범위와 빈도의 경우 다소 상충하는 결과를 보였다.

기업역량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Wiklund & Shepherd(2003)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기반자원이 기업가치향성을 매개로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으며, 이때 기업의 지식기반자원은 경쟁기업과 비교한 산업 및 기술적 정보역량(인재, 전문 지식 등) 보유 정도로 측정하였다[20]. Standifird & Marshall(2000)은 대인관계(Quanxi) 네트워크 활동이 거래비용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

개발(네트워크 규모 및 활동 범위) 정도가 높을수록 거래비용이 감소하는 반비례 관계를 발견하였다[17].

기업역량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김정포·고경일(2009)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식기반자원이 기업가지향성을 매개로 해외 진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고, 이때 지식기반자원은 시장 관련 지식(고객 요구 이해도, 고객 만족도 지속점검 정도, 시장기회의 포착 정도, 주요경쟁기업의 행동에 대한 대응 정도)과 기술 관련 지식으로 측정하였다[21]. 양영익(2016)은 제조기업의 전략적유연성(시장전략과 제품개발의 유연성 정도)이 성과(성장성, 수익성,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략적유연성이 차별화와 비용 우위를 매개로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22].

즉, 네트워크 활동 특성이 기업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역량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일부 있었으나 연구마다 활용한 변수가 각각 다르고 이러한 다양한 기업역량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매개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한편 네트워크 활동과 기업 성과에 관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보면 주현정(2014)의 네트워크의 수준과 조직성과 및 네트워크 관리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임병학 등(2015)의 의류매장 판매원의 감성 및 사회 네트워크가 신뢰와 영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 이양복과 최항석(2016)의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 다양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오문청과 정수진(2017)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직무성과 및 조직문화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박지혜(2017)의 IT 기업의 협력 네트워크와 성과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산업과 기업 유형별로 네트워크의 특성과 조직 및 기업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으며, 온라인 네트워크와 감성지능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다양한 변수를 투입하여 네트워크와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23-27].

III.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활동 특성인 네트워크 범위, 네트워크 빈도, 네트워크 중요도, 네트워크 신뢰도를 독립변수로 두고, 이들 변수가 종속변수인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기업이 보유한 역량인 산업정보역량, 기회포착역량, 전략적유연성, 거래비용절감 역량을 매개변수로 두어 매개효과를 함께 분석하고자 연구모형 및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가설1. 네트워크 범위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네트워크 빈도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네트워크 중요도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4. 네트워크 신뢰도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5. 기업역량은 가설1(네트워크 범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 가설6. 기업역량은 가설2(네트워크 빈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 가설7. 기업역량은 가설3(네트워크 중요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 가설8. 기업역량은 가설4(네트워크 신뢰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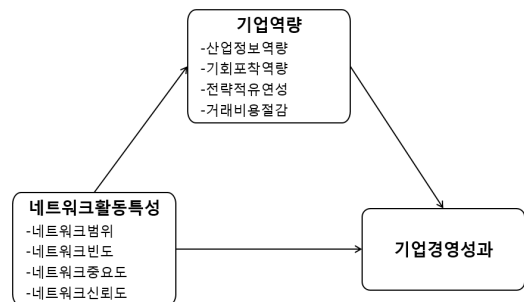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작적 정의 및 변수의 측정

변수의 정의 및 설문항목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네트워크 활동 특성은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 사적 네트워크(가족이나 친척, 친구나 동창), 자문 네트워크(회계사, 법조인), 공공 네트워크(연구기관, 대학, 정부 부처, 관련 산업협회), 사회적 네트워크(경쟁기업, 고객 및 거래처, 공급자, 금융기관,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각각의 네트워크 범위, 빈도, 중요도, 신뢰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때 네트워크 빈도는 해당 네트워크와의 사업 관련 접촉횟수를 '1=전혀 없음, 2=매년 1~2회, 3=매 분기 1~2회, 4=매월 1~2회, 5=매주 1회 이상'으로 측정했으며, 네트워크 범위는 사업 관련 접촉이 있을 경우 네트워크 유형별 교류 여부를 총합하여 도출하였다. 네트워크 중요도는 해당 네트워크와의 사업 관련 유대관계 중요도로 측정했으며, 네트워크 신뢰도는 해당 네트워크와의 사업 관련 신뢰 정도로 측정하였다. 기업역량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산업정보역량은 '우리 회사는 산업정보 관련 지식과 정보를 폭넓게 알고 있다', '우리 회사의 산업 관련 지식과 정보들은 매우 체계적이다' 등 4개 문항으로 측정했으며, 기회포착역량은 '우리 회사는 신제품에 대한 시장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다양한 기회 중에서 유용한 기회를 선별할 수 있다' 등 4개 문항,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 회사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자원을 유연하게 할당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시장이 변할 때 빨리 전략을 재수립하거나 조정을 한다' 등 10개 문항, 거래비용절감은 '우리 회사는 기업에 필요한 경영 및 기술컨설팅 등을 지원받기 용이하다', '우리 회사는 기업에 필요한 유통망을 개척하기 용이하다' 등 10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경영성과는 '우리 회사의 수익률이 향상되고 있다', '우리 회사의 고객서비스 및 고객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다' 등 기업의 재무적·인적 성과를 1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개인과 기업에 대한 인구통계적 특성을 9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구분	정의	문항 수	출처
네트워크 활동 특성	네트워크 범위	13	Coleman(1988), McEvily & Zaheer (1999), Baum et al. (2000), 정대용·유정환·김춘광(2011)
	네트워크 빈도	13	
	네트워크 중요도	13	
	네트워크 신뢰도	13	
기업역량	산업정보역량	4	Aghion & Howitt (1992), Dollinger(1999), Birley(1985), 이춘우(2004), Bygrave(1987), Sigrist(1999), Chandler & Hanks(1994), Artz & rush(2000), Wang(2002)
	기회포착역량	4	
	전략적 유연성	10	
	거래비용절감	10	
경영성과	기업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재무상태, 시장반응, 프로세스개선, 학습/혁신의 향상수준	10	Chandler & Hanks(1994), Kaplan & Norton(1992)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연령 혼인여부 최종학력 기업형태 기업규모 매출업종 설립연수	9	-

2. 자료수집 방법

설문조사는 기업의 업종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충남지역 소재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2017년 3월 10일에 예비조사를 진행 후 보완을 거쳐 본 설문은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임의 표집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하였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485개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 응답 등을 제외하고 총 421개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분석 도구로는 SPSS 통계패키지 20버전을 사용했으며, 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3. 측정의 타당도 및 신뢰도

요인분석은 직각회전(Varimax) 방식으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적합도가 낮은 4개 요인을 최종적으로

제거하였고, 신뢰도분석까지 실시한 결과 고유값 (Eigen Value)이 모두 1 이상이며, 누적 분산 설명력은 48.7%, 크론바하 알파값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KMO와 Bartlett 검정값이 .886($p < .001$)로 유의하게 나타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표 2.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구분	측정 변수	요인 적재량	Eigen Value	누적 분산 (%)	Cronbach α
전략적 유연성	필요 생산자원 유연 할당	.759	4.466	13.135	0.845
	필요 마케팅 자원 유연 투입	.678			
	물적/인적자원 재구성 유연	.654			
	새로운 제품/서비스 신속제공	.643			
	목표시장 필요자원 재구성 유연	.610			
	변화에 전략 재수립 조정	.594			
	변화에 신속히 전략 대안 수립	.550			
	변화에 빨리 제품/서비스 개선	.537			
	제품설계 유연 변경	.532			
	고객 욕구 포착, 기회 발굴	.477			
거래비용 절감	경영/기술컨설팅 지원 용이	.699	4.236	25.595	0.809
	마케팅 활동 지원 용이	.648			
	인력양성/인재채용 용이	.635			
	재무적 애로사항 해결 용이	.624			
	제조/개발 장비 활용 용이	.598			
	유통망 개척 용이	.595			
	외부기술/시장정보 수집 용이	.594			
	고객 동향 파악 용이	.553			
원자재 조달 용이	.545				
경영성과	수익률 증가	.695	3.334	35.401	0.802
	시장점유율 증가	.689			
	매출액 향상	.641			
	고객 수 증가	.615			
	업무처리속도, 정확성, 신뢰성 향상	.530			
	원가 절감	.522			
	지적 자산 가치 증가	.500			
	고객서비스/만족도 향상	.449			
	연구개발 능력 향상	.426			
기회 포착 역량	신제품 시장기회 포착	.645	2.266	42.064	0.664
	유용한 기회 선별	.507			
	문제해결 새로운 방법 탐색	.485			
산업 정보 역량 지	산업 관련 지식/정보 체계성	.635	2.249	48.679	0.704
	산업 관련 지식/정보 유지관리	.550			
	산업 관련 지식정보 폭넓게 인지	.486			

V.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기업형태는 중소기업(52%)과 소기업(40.9%)이 가장

많았고, 기업규모는 50명 미만(64.4%), 매출액은 5억 이상~50억 미만(41.3%), 산업분야는 비제조업(53.9%), 설립연수는 10년 미만(46.1%)이 가장 많았다. 또한, 성별은 남성(76%), 연령대는 50대(64.8%), 기혼(91.7%), 최종학력은 대졸(44.9%)이 가장 많았다.

표 3.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	%	
기업형태	중견기업 이상	30	7.1
	중소기업	219	52.0
	소기업	172	40.9
기업규모	1~49명	271	64.4
	50~99명	76	18.1
	100명 이상	74	17.6
매출액	5억 미만	120	28.5
	5~50억 미만	174	41.3
	50억 이상	127	30.2
산업	제조업	194	46.1
	비제조업	227	53.9
설립연수	10년 미만	165	39.2
	11~15년	134	31.8
	16년 이상	122	29.0
성별	남성	320	76.0
	여성	101	24.0
연령	20~30대	26	6.2
	40대	93	22.1
	50대	273	64.8
60대	29	6.9	
	혼인여부	미혼	35
기혼		386	91.7
최종학력	고졸이하	69	16.4
	전문대졸	76	18.1
	대졸	189	44.9
	대학원졸	87	20.7

기업인들은 평균 11.8개의 네트워크 원천과 교류하며 (네트워크 범위), 네트워크 신뢰도(3.22점)-네트워크 중요도(3.21점)-네트워크 빈도(3.04점) 순으로 인식이 높았다(5점 척도). 기업역량은 전략적유연성(3.43점)-기회포착역량(3.41점)-산업정보역량(3.37점)-거래비용절감(3.22점) 순으로 역량이 높다고 인식했으며, 경영성과(3.32점)는 보통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4. 기초통계량

구분	평균	표준편차
네트워크 활동 특성	네트워크 범위	11.8
	네트워크 빈도	3.04
	네트워크 중요도	3.21
	네트워크 신뢰도	3.22

기업역량	산업정보역량	3.37	.561
	기회포착역량	3.41	.575
	전략적유연성	3.43	.529
	거래비용절감	3.22	.517
경영성과		3.32	.465

2. 분석 결과

2.1 네트워크 활동 특성과 경영성과

인구통계적 변수를 통제하여 네트워크 활동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9]와 같다.

먼저 네트워크 범위의 경우 경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트워크의 크기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무조건 네트워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경영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네트워크 범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형1			모형2		
	B	β	t	B	β	t
(상수)	3.414		29.957***	3.338		20.019***
여성	-.087	-.080	-1.593	-.083	-.076	-1.504
40대	-.390	-.348	-3.830***	-.398	-.356	-3.876***
50대	-.350	-.360	-3.594***	-.358	-.368	-3.641***
60대 이상	-.111	-.061	-.863	-.120	-.066	-.927
전문대출	.134	.111	1.752	.128	.106	1.665
대출	.088	.094	1.306	.089	.095	1.318
대학원출	.123	.107	1.572	.120	.105	1.538
중소기업	.151	.162	2.785**	.146	.157	2.667**
중견기업	.174	.096	1.661	.172	.095	1.643
제조업	.025	.026	.508	.026	.027	.527
설립6년~15년	.139	.106	1.926	.145	.111	1.991*
설립16~25년	.133	.121	2.256*	.133	.121	2.258
네트워크 범위				.007	.031	.625
R^2	.098			.099		
수정된 R^2	.071			.070		
ΔR^2	.098			.001		
ΔF	3.692***			.390		

*p < .05, **p < .01, ***p < .001

네트워크 빈도(β :.118, $p < .05$)와 중요도(β :.215, $p < .001$) 모두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네트워크 중요도가 경영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활동 특성으로 나타났다.

표 6. 네트워크 빈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형1			모형2		
	B	β	t	B	β	t
(상수)	3.414		29.957***	3.107		17.751***
여성	-.087	-.080	-1.593	-.066	-.061	-1.210
40대	-.390	-.348	-3.830***	-.406	-.363	-3.999***
50대	-.350	-.360	-3.594***	-.360	-.370	-3.715***
60대 이상	-.111	-.061	-.863	-.127	-.069	-.992
전문대출	.134	.111	1.752	.116	.096	1.523
대출	.088	.094	1.306	.085	.092	1.279
대학원출	.123	.107	1.572	.119	.104	1.539
중소기업	.151	.162	2.785**	.142	.153	2.622**
중견기업	.174	.096	1.661	.179	.099	1.718
제조업	.025	.026	.508	.030	.032	.626
설립6년~15년	.139	.106	1.926	.166	.127	2.281*
설립16~25년	.133	.121	2.256*	.139	.127	2.373*
네트워크 빈도				.103	.113	2.304*
R^2	.098			.110		
수정된 R^2	.071			.081		
ΔR^2	.098			.012		
ΔF	3.692***			5.309*		

*p < .05, **p < .01, ***p < .001

표 7. 네트워크 중요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형1			모형2		
	B	β	t	B	β	t
(상수)	3.414		29.957***	2.718		14.319***
여성	-.087	-.080	-1.593	-.096	-.088	-1.803
40대	-.390	-.348	-3.830***	-.371	-.332	-3.729***
50대	-.350	-.360	-3.594***	-.334	-.343	-3.505**
60대 이상	-.111	-.061	-.863	-.085	-.046	-.671
전문대출	.134	.111	1.752	.119	.098	1.586
대출	.088	.094	1.306	.087	.093	1.330
대학원출	.123	.107	1.572	.091	.080	1.194
중소기업	.151	.162	2.785**	.122	.131	2.284*
중견기업	.174	.096	1.661	.181	.100	1.775
제조업	.025	.026	.508	.022	.023	.458
설립6년~15년	.139	.106	1.926	.180	.137	2.534*
설립16~25년	.133	.121	2.256*	.131	.120	2.290*
네트워크중요도				.219	.215	4.531***
R^2	.098			.141		
수정된 R^2	.071			.114		
ΔR^2	.098			.043		
ΔF	3.692***			20.531***		

*p < .05, **p < .01, ***p < .001

네트워크 신뢰도(β :.111 $p < .05$) 또한 경영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인 영향력은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8. 네트워크 신뢰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형1			모형2		
	B	β	t	B	β	t
(상수)	3.414		29.957***	3.001		13.935***
여성	-.087	-.080	-1.593	-.088	-.081	-1.617
40대	-.390	-.348	-3.830***	-.411	-.368	-4.045***
50대	-.350	-.360	-3.594***	-.376	-.386	-3.850***
60대 이상	-.111	-.061	-.863	-.142	-.077	-1.100
전문대졸	.134	.111	1.752	.116	.096	1.520
대졸	.088	.094	1.306	.074	.079	1.097
대학원졸	.123	.107	1.572	.097	.084	1.230
중소기업	.151	.162	2.785**	.143	.153	2.637**
중견기업	.174	.096	1.661	.183	.101	1.760
제조업	.025	.026	.508	.022	.023	.453
설립6년~15년	.139	.106	1.926	.160	.122	2.204*
설립16~25년	.133	.121	2.256*	.137	.125	2.341*
네트워크신뢰도				.141	.111	2.258*
R^2	.098			.109		
수정된 R^2	.071			.081		
ΔR^2	.098			.011		
ΔF	3.692***			5.097*		

*p < .05, **p < .01, ***p < .001

요약하자면 네트워크 활동 특성(네트워크 범위, 빈도, 중요도, 신뢰도)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 범위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네트워크 중요도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므로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네트워크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사업상 중요도가 높은 네트워크 원천과 집중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표 9. 네트워크 활동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가설	경로	β	결과
H1	네트워크 범위→경영성과	.031	기각
H2	네트워크 빈도→경영성과	.113*	채택
H3	네트워크 중요도→경영성과	.215***	채택
H4	네트워크 신뢰도→경영성과	.111*	채택

*p < .05, **p < .01, ***p < .001

또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네트워크 범위

를 제외한 나머지 네트워크 활동 특성을 원천별로 다시 나누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는 [표 10-12]와 같다.

네트워크 빈도를 원천별로 투입했을 때 회계사, 연구기관, 경쟁기업, 창업보육센터와의 교류빈도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국내 연구기관($\beta=2.640, p<.01$)과의 네트워크 빈도가 경영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연구기관과 경쟁기업과의 네트워크 빈도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회계사와 창업보육센터와의 네트워크 빈도는 경영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즉,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 접촉 빈도의 효과가 경영성과에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0. 네트워크 원천별 빈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p	
(상수)	3.095	.147		21.023	.000***	
사적	가족친척	.050	.029	.104	1.745	.082
	친구동창	-.040	.031	-.076	-1.313	.190
자문	회계사	-.076	.031	-.156	-2.483	.013*
	법조인	-.003	.029	-.005	-.089	.929
공공	연구기관	.085	.032	.175	2.640	.009**
	대학	.008	.032	.016	.265	.791
	정부부처	.027	.032	.054	.831	.407
	산업협회	.000	.031	.000	-.001	.999
사회적	경쟁기업	.070	.028	.144	2.525	.012*
	고객거래처	-.036	.026	-.074	-1.386	.167
	공급자	-.032	.028	-.057	-1.107	.269
	금융기관	.054	.030	.098	1.787	.075
	창업센터	-.046	.020	-.131	-2.374	.018*
$R^2=.091$, 수정된 $R^2=.062$, $F=3.142$ ***						

*p < .05, **p < .01, ***p < .001

네트워크 중요도를 원천별로 투입했을 때 회계사, 연구기관, 대학, 정부 부처, 경쟁기업과의 네트워크 중요도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국내 연구기관($\beta=.176, p<.01$)과의 네트워크 중요도가 경영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연구기관, 대학, 정부 부처, 경쟁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중요도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회계사에 대한 네트워크 중요도는 경영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즉, 어떠한 네트워크 유형과의 교류를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 경영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1. 네트워크 원천별 중요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p	
(상수)	2.811	.176		15.988	.000***	
사적	가족친척	.031	.026	.067	1.219	.224
	친구동창	-.012	.029	-.022	-.394	.694
자문	회계사	-.064	.029	-.128	-2.158	.032*
	법조인	-.024	.032	-.041	-.756	.450
공공	연구기관	.091	.033	.176	2.738	.006**
	대학	.070	.030	.140	2.315	.021*
	정부부처	.070	.033	.133	2.124	.034*
사회적	산업협회	-.009	.034	-.016	-.261	.794
	경쟁기업	.055	.026	.114	2.097	.037*
	고객거래처	-.032	.030	-.057	-1.072	.284
	공급자	-.014	.030	-.026	-.488	.626
	금융기관	.014	.030	.024	.467	.641
창육센터	-.026	.021	-.063	-1.244	.214	
R ² =.127, 수정된 R ² =.099, F=4.563***						

*p <.05, **p <.01, ***p <.001

네트워크 신뢰도를 원천별로 투입했을 때 가족 및 친척(β -.136, p <.05)에 대한 네트워크 신뢰도만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네트워크 활동 특성보다는 네트워크 신뢰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보다는 교류 빈도와 중요도가 경영성과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할 수 있다.

표 12. 네트워크 원천별 신뢰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p	
(상수)	2.864	.214		13.387	.000***	
사적	가족친척	.079	.031	.136	2.532	.012*
	친구동창	.058	.036	.091	1.618	.106
자문	회계사	.023	.035	.040	.671	.503
	법조인	-.025	.033	-.044	-.761	.447
공공	연구기관	-.007	.034	-.012	-.214	.830
	대학	-.019	.036	-.030	-.520	.603
	정부부처	.005	.035	.009	.149	.882
사회적	산업협회	.041	.034	.067	1.197	.232
	경쟁기업	.045	.031	.077	1.464	.144
	고객거래처	-.048	.032	-.079	-1.507	.133
	공급자	-.012	.034	-.018	-.343	.732
	금융기관	.006	.035	.009	.162	.872
창육센터	-.022	.023	-.048	-.954	.341	
R ² =.055, 수정된 R ² =.025, F=1.818*						

*p <.05, **p <.01, ***p <.001

2.2 기업역량의 매개효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활동 특성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역량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3-15]와 같다. 네트워크 범위의 경우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네트워크 빈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산업정보역량과 거래비용절감이 이를 완전 매개했으며, 기회포착역량과 전략적유연성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3. 네트워크 빈도와 경영성과에 대한 기업역량의 매개효과

가설	경로	단계1 (독립-매개)	단계2 (독립-종속)	단계3 (독립/매개-종속)	매개 효과
H6a	네트워크빈도→산업정보역량→경영성과	.269***	.106*	.019 .324***	완전 매개
H6b	네트워크빈도→기회포착역량→경영성과	.035	.106*	.092* .393***	없음
H6c	네트워크빈도→전략적유연성→경영성과	.088	.106*	.073 .375***	없음
H6b	네트워크빈도→거래비용절감→경영성과	.516***	.106*	-.121* .440***	완전 매개

*p <.05, **p <.01, ***p <.001

네트워크 중요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산업정보역량, 기회포착역량, 전략적유연성은 부분 매개, 거래비용절감은 완전 매개 효과를 보였다.

표 14. 네트워크 중요도와 경영성과에 대한 기업역량의 매개효과

가설	경로	단계1 (독립-매개)	단계2 (독립-종속)	단계3 (독립/매개-종속)	매개 효과
H7a	네트워크중요도→산업정보역량→경영성과	.332***	.208***	.111* .291***	부분 매개
H7b	네트워크중요도→기회포착역량→경영성과	.309***	.208***	.095* .367***	부분 매개
H7c	네트워크중요도→전략적유연성→경영성과	.279***	.208***	.110* .351***	부분 매개
H7b	네트워크중요도→거래비용절감→경영성과	.373***	.208***	.079 .345***	완전 매개

*p <.05, **p <.01, ***p <.001

네트워크 신뢰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개 역량(산업정보역량·기회포착역량·전략적유연성·거래비용절감) 모두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표 15. 네트워크 신뢰도와 경영성과에 대한 기업역량의 매개 효과

가설	경로	단계1 (독립-매개)	단계2 (독립-중속)	단계3 (독립/매개-중속)	매개 효과
H8a	네트워크신뢰도→산업정보역량→경영성과	.212***	.092*	.024 .324***	완전 매개
H8b	네트워크신뢰도→기회포착역량→경영성과	.213***	.092*	.009 .394***	완전 매개
H8c	네트워크신뢰도→전략적유연성→경영성과	.196***	.092*	.018 .378***	완전 매개
H8d	네트워크신뢰도→거래비용절감→경영성과	.253***	.092*	-.003 .376***	완전 매개

*p <.05, **p <.01, ***p <.001

종합하자면 경영성과에 대하여 산업정보역량과 거래비용절감 역량은 네트워크 빈도, 중요도, 신뢰도 모두에 매개효과를 보였으며, 기회포착역량과 전략적유연성은 네트워크 빈도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중요도 및 신뢰도에 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네트워크 활동 특성이 기업역량을 향상시키고, 향상된 기업역량이 경영성과를 높이는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또한, 완전 매개로 나타난 경우가 많았는데 네트워크 활동이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기업역량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변수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 최고경영자 기업인의 네트워크 활동 특성 중 네트워크 빈도, 중요도, 신뢰도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네트워크 범위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네트워크 활동의 양적 특성보다는 질적 특성이 경영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네트워크 활동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역량(산업정보역량, 기회포착역량, 전략적유연성, 거래비용절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다차원적인 기업역량을 기업인 네트워크 활동과 경영성과 간의 매개변수로 채택하여 네트워크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적으로 분석, 학술적 시사점을 제공한 데 있다.

둘째, 기업인 네트워크 활동 특성이 기업역량을 포함한 성과변수 전반에 강한 긍정적 영향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투자와 유대관계 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서는 효과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 투자나 학습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 강의 활성화, 멘토링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기업인의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펼칠 수 있다.

셋째, 기업인 네트워크 활동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네트워크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원천과 집중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입증하였다. 실무적으로 기업인의 네트워크 활동이라고 하면 네트워크 범위를 넓혀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네트워크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 특성을 강화하는 것이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더 효과적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네트워크의 질적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요 네트워크 원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네트워크 관리 노력과 함께 네트워크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중요성 인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분석의 복잡성으로 인해 다양한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좀 더 포괄하여 기업 규모별 효과의 차이를 파악하고, 산업 분야나 업종을 다변화하여 분야별, 네트워크 원천별 또는 유형별 효과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네트워크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매개변수 및 조절변수를 발굴하여 기업인 네트워크 활동 관련 연구의 저변을 넓힐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최애희(2017)의 박사학위논문을 재구성하였음

참고 문헌

- [1] L. J. Gitman and C. McDaniel, *The Future of Business: The Essentials*, 2nd ed., Thomson, 2005.
- [2] B. R. Koka and J. E. Prescott, "Strategic alliances as social capital: a multidimensional view,"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23, No.9, pp.795-816, 2002.
- [3] P. A. Wickham, *Strategic Entrepreneurship*, 2nd ed., Essex, UK: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4.
- [4] A. Rickne, "Connectivity and Performance of Science-based Firm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26, No.4, pp.393-407, 2006.
- [5] D. Lavie, *The interconnected firm: Evolution, strategy, and performan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04.
- [6] 최종열, "기술창업기업의 네트워크 특성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보육센터기업을 중심으로," 벤처경영연구, 제13권, 제4호, pp.87-108, 2010.
- [7] A. Larson, "Network dyads in entrepreneurs settings: a study of the governance of exchange relationship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37, pp.76-104, 1992.
- [8] W. M. Cohen and D. A. Levinthal, "Absorptive capacity: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on Science Quarterly*, Vol.35, No.1, pp.128-152, 1990.
- [9] S. Nadkarni and V. K. Narayanan, "Strategic schemas, strategic flexibility, and firm performance: the moderating role of industry clockspeed,"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28, No.3, pp.243-270, 2007.
- [10] J. Kickul, L. K. Gundry, S. D. Barbosa, and L. Whitcanack, "Intuition Versus Analysis? Testing Differential Models of Cognitive Style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the New Venture Creation Proces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33, No.2, pp.439-453, 2009.
- [11] N. Roberts and G. J. Stockport, "Defining strategic flexibility," *Global Journal of Flexible Systems Management*, Vol.10, No.1, p.27, 2009.
- [12] P. Matthyssens, P. Pauwels, and K. Vandenbempt, "Strategic flexibility, rigidity and barriers to the development of absorptive capacity in business markets: Themes and research perspectives,"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Vol.34, No.6, pp.547-554, 2005.
- [13] W. Golden and P. Powell, "Towards a definition of flexibility: in search of the Holy Grail?," *Omega*, Vol.28, No.4, pp.373-384, 2000.
- [14] O. E. Williamson,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s*, Simon and Schuster, 1985.
- [15] H. Aldrich, *Organizations and Environ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9.
- [16] G. Walker, B. Kogut, and W. Shan, "Social Capital, Structural Holes and the Formation of an Industry Network," *Organization Science*, Vol.8, No.2, pp.109-125, Mar-Apr, 1997.
- [17] S. S. Standifird and R. S. Marshall, "The transaction cost advantage of guanxi-based business practices,"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35, No.1, pp.21-42, 2000.
- [18] 박상문, *국내 모험기업의 네트워크 활동과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1997.
- [19] 정대용, 양준환, "한·중 중소기업의 네트워크가 지각된 기업성과에 미치는 관계모형에 관한 실증적 비교분석," *국제경영리뷰*, 제13권, 제2호, pp.27-56, 2009.
- [20] J. Wiklund and D. Shepherd, "Knowledge based resource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the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24, No.13, pp.1307-1314, 2003.

- [21] 김정포, 고경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식 기반자원과 해외진출성과간 관계에 있어 기업가적 지향성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리뷰, 제13권, 제4호, pp.123-143, 2009.
- [22] 양영익, “국내 제조업체의 전략적 유연성, 경쟁우위, 성과 간의 관계: 조정메카니즘의 조절영향을 중심으로,” 마케팅논집, 제24권, 제1호, pp.83-104, 2016.
- [23] 주현정, “컨벤션산업조직간 네트워크형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네트워크 관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제28권, 제5호, pp.133-148, 2014.
- [24] 임병학, 권홍철, 홍한국, “의류매장에서 판매자의 감성 및 사회 네트워크가 신뢰와 영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호, pp.388-398, 2015.
- [25] 이양복, 최항석, “지배구조 및 네트워크 다양성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상논총, 제34권, 제3호, pp.57-77, 2016.
- [26] 오문칭, 정수진, “사회적 네트워크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온라인 네트워크와 오프라인 네트워크 분석,” 경영교육연구, 제32권, 제5호, pp.265-292, 2017.
- [27] 박지혜, “초연결시대의 협력: IT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와 성과에 관한 연구,” Information Systems Review, 제19권, 제2호, pp.21-35, 2017.

저 자 소 개

최 애 희(Ae-Hee Choi) 정회원



- 1998년 2월 : 우송대학교 컴퓨터학과(공학사)
- 2011년 2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대학원(경영학석사)
- 2011년 3월 ~ 현재 : (주)드리미 대표이사

▪ 2017년 8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

문대학원(인력경영학박사)

<관심분야> : 기업인 네트워크, 인력경영, 산업경영

박 진 아(Jin-Ah Park) 정회원



- 2011년 8월 : 홍익대학교 경영학부(경영학사)
- 2014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인력개발학과 고용진공 박사과정

<관심분야> : 정책연구, 노동경제학, 경영학,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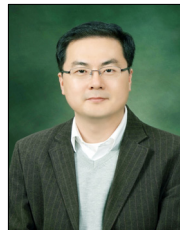
김 윤 호(Yoon-Ho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관리전공(경영학박사)
- 2017년 9월 ~ 현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학과 대우교수

<관심분야> : 고용관계,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이 재 원(Jae-Won Lee) 중신회원



- 1995년 8월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정보공학과(공학석사)
- 2003년 8월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공학(경영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 전자상거래, 정보시스템, 비즈니스IT스킬